

<한국 역사인물 초상화DB 편찬 내용 및 방법 – 궁중기록화DB 편찬 내용과의 연계>

본 연구팀은 국보·보물로 지정된 초상화 74점¹⁾(고려말~조선말까지의 인물)과 표준영정 43점(조선시대 인물)에서 선정한 인물과 인물의 복식 정보를 통해 1차 년도에 개발한 궁중기록화DB 플랫폼에서 제외되었던 주제들을 보충·보완하고자 한다.

1차 년도에 개발한 궁중기록화DB의 경우 ‘궁중기록화’라는 주제 하에 한국인이 알아야 할 대표복식 중에서 왕실복식을 중심으로 구축하였다. 이는 국보·보물로 지정된 초상화 53점(왕실인물 4명, 문무백관 45명)과 표준영정 22점(왕실인물 5명, 문무백관 17명)의 복식과 서로 연결될 수 있는 접점을 보여준다. 기존 복식 노드와 연결됨과 동시에 신규 노드를 추가하여 세부적인 복식 구성에 대한 이해를 돋고자 한다. 17점의 초상화와 21점의 표준영정을 통해서는 1차 년도 주제에 포함되지 않았던 양반의 연거복 및 반가 여성의 복식에 대해 보충하고자 하며, 고려시대의 초상화 4점²⁾은 여말선초 복식형태를 밝히는 중요한 자료로써 제시하고자 한다. 표준영정 인물의 착장복식 고증에 대해서는 복식학자가 동상영정심의위원회의 심의위원으로 구성된 연도가 81년도부터인 것³⁾을 감안하여 그 이전시기(73~80년)에 지정된 조선시대 인물 8명⁴⁾의 복식은 더욱 유심히 연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상으로 ‘궁중기록화DB’와 ‘한국 역사인물 초상화DB’의 연계 작업을 통해 왕실에서 반가에 이르기까지 착장신분의 범위를 확장하여 폭넓은 복식문화 콘텐츠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국보·보물로 지정된 초상화와 표준영정 총 117점은 왕실인물, 관복, 군복, 편복(연거복), 여성복 총 5개 항목으로 분류 할 수 있으며 연결되는 복식 정보 및 추가 복식 노드는 【표 1】과 같다.

【표 1】 국보·보물 지정 초상화 및 표준영정 기준 궁중기록화 관련 예시

번호	국보·보물 지정 초상화 및 표준영정 인물	국보·보물 지정 초상화 및 표준영정 복식	궁중기록화 해당 복식	세부 복식
1	보물 제 932 호 영조어진	익선관(翼善冠) 곤룡포(袁龍袍)	상복(常服)	익선관(翼善冠) 곤룡포(袁龍袍) 옥대(玉帶) 벼선[襪] 녹피화(鹿皮靴)
	세종			
2	보물 제 1492 호 철종어진	융복(戎服)	융복(戎服)	전립(氈笠) 전복(戰服) 동다리(同多里)
	철종			

- 1) 중복 제외(보물 제1110-1호 정몽주 초상, 보물 제1215-1호 이색초상-목은영당본, 제1215-2호 이색초상-영모영당본, 제1215-4호 이색초상-대전영당본, 보물 제1499-2호 이하옹 초상 일괄-금관조복본.), 보물 제1499-1호인 이하옹 초상의 경우 흑단령포본, 금관조복본, 와룡관학창의본, 흑건청포본, 복건심의본 총 5점이 하나의 문화재번호로 지정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개별 초상화로 계산함.
- 2) 국보 제110호 이제현 초상, 국보 제111호 안향 초상, 보물 제594호 최덕지초상및유지초본, 보물 제1097호 염제신초상.
- 3) 이영미(2015), 「韓國標準影幀研究: 制度의 制定과 變遷過程을 中心으로」, 홍익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43.
- 4) 이순신(1973), 세종대왕(1973), 정약용(1974), 이황(1974), 이이(1975), 조헌(1975), 김정호(1975), 김정희(1978)

<한국 역사인물 초상화DB 편찬 내용 및 방법 – 궁중기록화DB 편찬 내용과의 연계>

				전대(戰帶) 요대(腰帶) 목화(木靴)
3	보물 제 487 호 정탁초상(1526~1605)	사모(紗帽) 단령(團領)	– 상복(常服)	사모(紗帽) 단령(團領) 품대(品帶) 화(靴)
	김육(1580~1658)			
4	보물 제 1477-2 호 채제공 초상 일괄 – 금관조복본(1720~1799)	조복(朝服)	조복(朝服)	양관(梁冠) 상의(上衣) 하상(下裳) 중단(中單) 폐슬(蔽膝) 수(綬=후수) 대대(大帶) 혁대(革帶) 파옥(佩玉) 버선[襪] 화(靴) 홀(笏)
	유성룡(1542~1607)			
5	김병연(김삿갓)	삿갓 두루마기		삿갓 두루마기
6	보물 제 1486 호 이광사 초상(1705~1777)	방관(方冠) 도포(道袍)	편복(便服)	방관(方冠) 도포(道袍)
	정약용(1762~1836)			
7	국보 제 239 호 송시열초상(1607~1689)	복건(幅巾) 심의(深衣)	편복(便服)	복건(幅巾) 심의(深衣) 화(靴)
	이이(1536~1584)			
8	김만덕	장의(長衣) 치마(赤尗)	장의(長衣, 장옷) 치마(赤尗) 여성 반가 편복	장의(長衣, 장옷) 치마(赤尗)
9	허난설헌	저고리(赤古里) 치마(赤尗)	여성 반가 편복	저고리(赤古里) 치마(赤尗)

국보·보물로 지정된 초상화와 표준영정의 인물을 통해 '궁중기록화DB'에서 다루지 못했던 복식과 관련된 사건 및 논의에 대한 이야기를 발굴하여 궁중기록화 디지털 스토리텔링의 주제를 확장시킴으로써 사용자들의 지적 요구에 대응하고자 한다. 예를 들어, 1. ‘심의’는 유학자의 의례복과 일상복으로, 초상화에서 송시열, 허전, 김이안, 이채, 표준영정에서 이황, 이익, 이지함, 이이, 유인석 등 총 9명의 인물 그림에 그려져 있다. 조선시대의 심의는 『예기』와 주자의 『주자가례』 전래와 함께 착용하기 시작했는데, 『주자가례』의 방식대로 심의를 제작해 착용했을 때 옷의 형태가 나오지 않는 점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면서 조선의 유학자들에게 심의제도에 대한 다양한 학설을 불러오게 되었다. 대표적으로 한백겸(韓百謙, 1552~1615), 김장생(金長生, 1548~1631), 서유구(徐有榘, 1764~1845) 등이 있다. 초상화에서 심의를 착장한 초상이 처음 확인되는 예는 이제현 초상(국보 제110호)이며 이후 17세

<한국 역사인물 초상화DB 편찬 내용 및 방법 – 궁중기록화DB 편찬 내용과의 연계>

기말 심의를 입은 초상화 제작형식이 정립된 것은 송시열 이후로 19세기 후반에는 채용신과 지방 화승들에 의해 다양하게 제작되었다.⁷⁾ 초상화에 그려진 심의는 노론·소론·남인별로 표현형식의 차이가 있어 그 인물의 당색을 규명하는 보충적인 근거로 제시될 수 있다. 2. 정약용은 『여유당전서(與猶堂全書)』에서 연거복의 구성요소로 ‘도포’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당시 조선 유학자들의 문집에서는 복식에 대한 기원, 구성, 제작법 등의 내용을 찾아볼 수 있는데 박지원의 『열하일기(熱河日記)』, 이덕무의 『청장관전서(靑莊館全書)』 등에서 언급한 도포 기록과 연계시켜 이야기할 수 있다. 3. 허난설헌, 김만덕의 머리 형태인 ‘엎은머리’는 조선시대 여성들의 사치와도 관련이 있다. 조선시대에는 엉은머리를 풍성하게 보이고자 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머리카락을 빌려 자신의 머리에 더해 엉은 ‘가체’가 성행했는데, 이덕무의 『청장관전서』에 기록된 가체와 관련된 일화와 이에 대한 상소내용이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되어 있으며, 정조의 <가체신금절목>을 통해 가체가 금지되고 ‘족두리’로 대체된 당시 상황과 이를 기록한 서유구의 『임원경제지』 등과 연결될 수 있다.

7) 심경보(2014) 「조선 후기 심의 초상 연구」, 고려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